

圖書館奉仕料金에 關한 一考察

孫 蓮 玉*

目 次

- I. 諸 言
 - 1. 研究의 目的
 - 2. 研究의 限界
 - II. 奉仕料金의 定義 및 背景
 - 1. 定義
 - 2. 背景
 - III. 奉仕料金의 찬·반論
 - 1. 奉仕의 理念
 - 1) 情報접근의 權理
 - 2) 經濟的 二重부담
 - 2. 情報奉仕와 小說奉仕
 - IV. 奉仕料策정과 奉仕要求
 - 1. 策定방법
 - 2. 奉仕料와 要求度
 - V. 結 言
3. Public Goods and Private Goods 의 문제
4. 原因分析

I. 諸 言

1. 研究의 目的

圖書館奉仕에 새로운 技術과 最新 電子媒體가 導入됨과 더불어 온라인에 의한 奉仕가 시작되고 따라서 이때까지 없었던 “奉仕料金”(User Fee)이 徵收되게 되면서 “料金”(Fee)에 관한 새로운 是非가 시작되었다. 이와같이 料金問題는 1970年度를 前後하여 약 10여년간 贊反 兩論으로 대립되면서 아직도 이 問題에 대한 確고한 根據나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이에 관한 많은 文獻들만 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Katz¹⁾가 지적한것 처럼 “오늘날 圖書館에서 컴퓨터 使用에 관한 주

*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

1) Katz, William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 II, 4th Ed. New York, McGraw Hill, 1982, p.109.

2 도서관학논집

된 논쟁은 컴퓨터 檢索의 기계적인 技術이나 지적인 내용을 통달한다든가 아니면 參考業務에 있어서 전통적인 印刷資料源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다 라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參考奉仕나 相互貸借과 같은 기타 도서관 봉사 業務에도 料金を 부가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다” .

이 料金 問題의 핵심은 情報 接近에 있어서 “모든사람이 혹은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²⁾는 것이 그 論爭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표면적인 爭點은 공공지원금에 의해서 維持되는 도서관에서 奉仕料를 附加시킬 것인가 아닐것인가 라는 問題와 또 이와같은 料金問題가 이용자들의 情報 接近에 미칠 영향문제인것 같지만 보다 세심한 조사에 의하면 이는 情報奉仕의 수송 (전달) 과 관련된 상당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周知할 수 있다. 즉³⁾ ① 어떤 奉仕와 情報生産 (창작) 을 어느 정도의 量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② 이와같은 奉仕에 대한 財源은 어떻게 충당할것인가? ③ 정보가 사회의 다양한 階層에 배포되었을때 그 정보로부터 얻는 이점은 무엇이며 제공된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는 階層은 어느 階層이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등의 政策的인 問題이다. ① 의 경우는 奉仕水準, 즉 最大奉仕와 最小奉仕, 혹은 中間奉仕의 水準을 결정하는 問題이고 ② 는 水準에 준하는 情報제공으로써 그 財政은 公共財源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 보충할 것인가, 보충할 경우에 그 방법등을 결정하는 問題 ③ 배포된 정보가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공히 같은 이익을 가져다 줄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特定階層에만 효력을 미칠것인가? 그럴 경우 누가 경제

2) Katz, Williams, Op Cit. p.108.

3) Waldhart, Thomas J. and Bellardo, Trud, “User Fees in Publicly Funded Libraries” Advances in Librarianship V.9, 1979, p.31.

적인 부담을 질 것인가? 등 모두가 圖書館 政策에 關連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研究에서는 컴퓨터보조에 의한 圖書館 奉仕가 아직은 지극히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점차 한국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에서 논란되고 있는 圖書館奉仕料金 徵收 문제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결코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될 수 없는 이 問題를 그들이 밟았던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한국의 도서관 政策 결정자나 司庫에게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소나마 정보봉사 운영정책에 參考가 되고져 한다.

2. 研究의 한계

情報奉仕 혹은 參考奉仕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現 한국 實情에서 그나마 컴퓨터를 이용한 On line 檢索에 의한 情報奉仕는 매우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서 실시 되고있는 奉仕내용이 美國이나 기타 先進國에서와 같은 範圍나 規模의 것이 아니고 일부 연구소와 學術團體에서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情報가 표출된 것이 없으며 더더구나 奉仕料金에 대한 論題는 전혀 擧論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 參考한 것은 대부분 美國의 圖書館 關係文獻을 中心으로 답사하였으며 한국의 실정은 전혀 考慮되지 않았다. 보다 심층적인 한국의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거론된 奉仕料金의 問題가 되는 主要대상은 公金에 의해서 유지되는 公共圖書館이었고 이외에 大學圖書館 其他 機關圖書館이었음을 밝혀둔다.

II. 奉仕料金の 定義 및 背景

1. 定義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奉仕料金 (User Fee) 에 대한 뚜렷한 定義를 제시한 것은 없었고 미결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意味는 “어떤 자료 (goods) 와 奉仕에 대하여 利用者가 圖書館에 대금을 지불하는것 이고 fine (科料, 벌금) 은 金錢的인 벌칙이다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 奉仕料金を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직접요금 (Direct User Fees) 과 간접요금으로 분류되고 圖書館에서 徵收되고 있는 料金중 奉仕料 (Fee), 수수료 (Charge), 벌칙금 및 연체료 (Fine), 예치금 (Deposit), 대출료 (Rental) 은 직접 使用料에 해당되는 料金으로, 이는 圖書館이 料金を 고정하고 이를 使用하는 個人에게 附加하는 것이다. 그러나 相互貸借와 같은 한 도서관이 다른도서관의 奉仕나 生産資料에 대한 지불은 그 料金の 전액이나 그 일부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사용료라 할 수 없다.⁵⁾

그러나 대체로 직접사용료 (Direct User Fees), 이용료 (User Fees) 이용수수료 (User Charge) 는 동의어 (同意語) 로 使用되고 있다.

2. 奉仕料金の 背景

도서관 奉仕에 料金を 徵收한 경우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고 이미 영국에서는 19世紀 중엽부터 公共圖書館 이용료를 徵收하여 特殊資料 구

4) Steig, Margaret F. "Fee Vs Free in Historical Perspective," Conflict in Reference Services, Reference Librarian No.12, New York, Spring / Summer 1985, p.103.

5) Waldhart and Trudo. Op. Cit. p.38.

임피로 활용한 바 있고 그후 美國에서도 19世紀 후반부터 20世紀 초기까지 많은 公共圖書館에서나 學術圖書館에서 도서관 生産資料나 奉仕에 대해서 料金を 附加하는 것이 하나의 확고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졌다.⁶⁾

McMullen⁷⁾이 조사한 料金內容을 보면 대출도서 (Rental book) 에 대한 料金徵收를 비롯하여 지정도서, 분실한 대출증 재발급, 복사, 상호대차, 족보조사, 회의실 사용, On line 서지 조사, 그리고 “사전을 15분이상 더 使用할때도 料金を 徵收한⁸⁾” 경우도 있었다. 그외도 도서관의 특수한 器機 例를 들면 타자기, 은반, 녹음기 기타 도서관의 시설이용시에도 料金を 徵收하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圖書館奉仕에 料金を 徵收하기 시작한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였고 또한 그 徵收 항목도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McMullen⁹⁾은 奉仕料에 대한 歷史的인 考察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① 圖書館에서 附加하는 奉仕料는 최근의 현상은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公金으로 支授되는 地區 (Public Sector) 에서는 料金徵收가 실시되고 있었다. ② 同種의 奉仕에 대한 奉仕料가 同種의 圖書館마다 상당히 다양하였고 또한 다른 館種끼리도 차이가 나며 일관성이 없었다. ③ 公共圖書館 司書들은 대개가 奉仕料에 대해서 理念的인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奉仕料를 징수했다. ④ 수수료 문제는 항상 論爭을 유발했다. ⑤ 주로 무료 公共圖書館에서 奉仕料가 主要關心의 대상이 되었다. ⑥ 경제성장이 鈍化되고 도서관이 資金을 필요로 할때 奉仕料 徵收가 빈번했다.

6) McMullen, H. "Historical Perspectives of User Fees in Libraries". Advances in Librarianship, V.9, 1979, p.38제 인용.

7) McMullen, H. "The History of Charging for Services in American Libraries that Have Traditionally Free". ALA, 1978.

8) Retting, Games. "Rights, Resolutions, Fees, and Reality" Library Journal, Feb. 1, 1981, p.301.

9) McMullen, H. Ibid.

6 도서관학논집

그러면 약 일백년전부터 이미 奉仕料金이 圖書館의 한 일부로 존재하였음에도 왜 최근에 많은 논쟁이 거듭되는가의 요인을¹⁰⁾ 종합하면, ① 奉仕의 방향이나 奉仕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圖書館의 意圖, ② 公共支援金으로 維持되는 도서관의 고정적인 財政源이 경제상태이거나 削減되는 이유 ③ 有料奉仕를 하는 공격적인 情報産業體의 제후현상, ④ 도서관 및 情報奉仕 관계기관들이 (공 사립도서관 정보산업체를 포함) 國家情報政策發展에 공헌을 시도하기 위하여 (찬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컴퓨터 導入과 더불어 야기된 이 料金問題는 바로 無料奉仕라는 도서관의 傳統性에 입각한 奉仕哲學에 대한 도전이며 無料奉仕라는 價値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Ⅲ. 奉仕料金の 찬성과 반대론

오늘날 未來學 研究家들은 現社會를 마치 많은 問題가 토론되고 회의하였던 Renaissance 시기와 유사한 전환점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宗教改革 당시 수도원 도서관이 파괴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대화재 사건 등은 이념의 한 急進的인 변화에서 온 文化 病弊의 예가 된다. 이와같은 急進的인 변화는 基本的인 價値觀을 자극함으로써 社會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견해와 信念에 갈등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人間과 社會의 심층을 형성하는 가치 혹은 가치관은 행위나 사고의 동기와 포부, 지각과 해석, 만족과 의의 그리고 평가기준 미저도 左之右之하며 그 재구성이나 재조정도 디더구나 어렵다”¹¹⁾

오늘날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奉仕料金에 대한 問題도 결국 이와같은 價値觀에서 기인한 哲學的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司書의 시각에서 보는 自由와 利用者가 보는 自由의 개념도 갈등이 있다. 즉 前者는

10) Waldhard and Bellardo. Op. Cit. p.40.

11) 정법모,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1980, p.20.

人類의 기록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기 원하는 自由이고 後者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情報奉仕에는 料金を 지불하기 원치않는 自由이다. 앞에서도 McMullen 이 지적한것 처럼, 大多數의 料금지불 반대자들의 主張은 그들의 價値觀의 근간이 道德의 기준에 두고 있고 요금지불의 淸正지는 現實과 理想과의 차이를 식별하고 實재로 있는 그대로 淸正하고 對峙하지는 主張들이다.

1. 奉仕의 理念

司書들은 항상 그들의 의무를 英雄的인 용어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거의 宗教的인 열정으로 淸正하기를 좋아한다. 모든 圖書館 특히 公共圖書館에서 闡明하는 目標들은 살펴보면¹²⁾ ① 圖書館의 窮極的인 重要性은 社會 질서의 基本을 理解할 수 있도록 大多數의 사람들에게 독서를 誘導할 수 있는 情報를 배포하는 方法에 重點을 두는 것이며 ② 독서가 가능한 모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 (봉사) 하는 곳이며 ③ 市民啓蒙을 진작시키며 個人의 生을 풍요롭게 하고 ④ 圖書館은 啓蒙을 위한 가장 훌륭한 場所이며 ⑤ 교양교육 및 文化的 오락적 目的을 提供하는 기구로서 이와같은 관심을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裝置이다.

도서관이 일백년 이상 반복해서 주장한 신조는 民主主義가 바람직한 것이고 때문에 民主主義는 教育을 받은 大衆에게 의존되며, 圖書館은 個人的인 그리고 社會的 目標를 추구하는 社會구성원들을 教育시키는 手段을 提供하는 곳¹³⁾ 이었다.

12) Gell, Marilyn, K. "USER Fees II: The Library Response". Library Journal, January 15, 1979, p.171.

13) Gell, M. K. Op. Cit. p.171.

圖書館 奉仕는 “成熟한 사회를 위한 生産과 열망의 상징, 그리고 변화하는 價値體制의 한 複合의인 產物”¹⁴⁾로 說明하고 있다. 특히 公共圖書館이나 敎育界 및 각 기관 圖書館奉仕는 하나의 理想과 情報과 그리고 文化로서 組織된 網(network)이며 어쩌면 이 網은 좋은것 나쁜것을 다 혼합한 文化의 한 일부이다. 文化는 성장의 원인이 된다. “圖書館 網(network)은 과거의 資源이며 현재에 活用되는 그리고 未來의 結實에 대한 소망의 원인이 된다. 한 사회가 成熟하려면 個人이나 全體집단이 내포한 모든 潛在의 可能性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各個人마다 타고난 기회를 最大한 有用할 수 있어야 한다.”¹⁵⁾

圖書館은 社會的 道具이며 同時에 政治的 裝置이다.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모든 기관들이 다 그러하듯이 分明하게 說明할 수 없는 그리고 표출되지 않은 無數히 많고도 깊은 市民들의 要求를 채워 주어야 한다.¹⁶⁾

그러므로 圖書館은 情報 調達處나 圖書を 배포하는 그 이상의 곳이다. 즉 ① 社會질서의 상징이며, ② 文化, 社會, 政治 및 社會經濟史와 연관을 맺으며, ③ 人間의 理想과 희망, 성공, 실패를 전수하는 곳이며 우리들에게 人間은 어디서부터 왔고 人間이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고로 이와같은 역할은 다른 어느 기구에서도 不可能하다고 생각한다.¹⁷⁾

이상과 같은 論旨는 거의 대부분 圖書館 奉仕料에 반대하는 학자 내지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圖書館奉仕의 理念이며 哲學이다.

이와같은 理念을 근거로하여 奉仕料金지불의 贊·反論者들의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14) Smith, John. "Conflict of Values - Charges in the Publicly Funded Library". Journal of Librarianship, 13(1), January, 1981. p.2.

15) Smith, John, Ibid.

16) Gell, M. K. Op. Cit. o.172.

17) Gell, Marilyn K. Ibid.

1) 정보접근의 권리

經濟的 理由때문에 情報의 自由로운 접근에의 自由를 위압하거나 그 선택의 책임을 파괴해서는 안된다.¹⁸⁾ 이는 圖書館의 道德的 理由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情報접근의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며 奉仕料金 지불 能力이 있는 자에게만 정보접근의 可能性을 주므로 이는 “정보접근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탈취하는 결과”¹⁹⁾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美國 圖書館 협회(ALA)에서나 백악관의 도서관 및 정보봉사(White House Conference On Lib. and Inf. Services) 협의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금의 지불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접근의 권리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²⁰⁾

1977년 요금지불 반대에 대한 건의가 ALA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천명하였다. 즉 “最新 情報기술을 活用하는 奉仕와 더불어 情報 奉仕에 料金を 徵收하거나 附加하는 것은 公共支援에 의해서 유지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차별이다.”²¹⁾ 라고 발표하였다.

백악관 도서관 정보봉사 협의회에서도²²⁾ 또 다른 결의를 채택했는데 첫째는 “奉仕料金を 附加 함으로써 어떤 시민도 정보접근으로 부터 저지당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정보 정책(National Information Policy)이 연구되고 이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이 실행될 것을 주장하였다. ① 公共財政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나 정보봉사기관에서는 모든 市民들에게 동등하고 충족하게(Full)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② 自由社會에 있어서 情報은 어떤 個人에게도 기본권리이며, 이는 모든 연령층, 그리고 모든 經濟的, 社會的 제

18) Smith, John. "A Conflict of Values - Chargen in the Publicly Funded Library". Journal of Librarinship, 13(1), Jan, 1981. p.4.

19) Gell, M. K. "USER Fees I: The Economic Argument". Library Journal, 1979, p.20.

20) Burges, Dean. "Fee or Free : The Database Access Controversy". Reference Librarian, No.12, 1985, p.109.

21) ALA Policy Marnual, in ALA Handbook of Organzatrion 1970/1980. ALA, 1979, p.126.

22)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ices. Washington D. C. 1979 in Ref. Lib. 12, p.109.

층의 사람들에게 情報은 重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³⁾ 그러나 위의 論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料金を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모든 사람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²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지불能力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價値있는 物品 (Goods) 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하는 事實을 망각하고 있다.²⁵⁾ 고 비판하는 자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圖書館의 奉仕를 빵과 옷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처럼 奉仕와 情報資料도 매매가 可能한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實在로 圖書館 現場에서는 料금이 徵收되고 있으며 더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절대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公共圖書館은 모든 사람들은 奉仕하지 않고 있으며”²⁶⁾고작 “20%~40%만이 圖書館을 使用하는”²⁷⁾ 것으로 나타나 있고 “圖書館인들이 주장하는 教育的, 經濟的, 道德的, 政治的 利益도, 주장하는 만큼의 노력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⁸⁾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금징수는 아직도 계속되며 두가지의 결의는 美國 圖書館史의 한 간 단한 角柱로 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²⁹⁾ 라고 理想과 現實의 격차를 비판하는 자도 있다.

또 한번 과연 정보접근의 권리가 個人的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인들의 한 일치된 견해는 人生에 있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중의 하나가 먹을것 (Food) 에 대한 권리로 나타난다. 同時에 각己 스스로 自己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같이 이행할 수 없는 無能力者를 위한 보조기관이 있다. 비록 完全하지는

23) Retting, op. Cit. p.302.

24) Van House, Nancy A. Public Library User Fees, Greenwood Press, London, 1983, p.109.

25) Van House, Ibid.

26) Burges, Dean. Op. Cit. p.99.

27) Gell, M. K. “USER Fees II: The Library Response”, Library Journal, Jan. 15, 1979, p.171.

28) Burges, Dean. Op. Cit. p.99.

29) Retting, James. “Rights, Resolutions, Fees, and Reality”. Library Journal, February. 1, 1981, p.302.

못하지만 이 계획의 의도는 그 어느 누구도 음식이 결핍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³⁰⁾ 그렇다면 이 음식에 관한 權利가 個人的 것인가 아니면 집단의 것인가? 實社會的인 분석에 의하면 個人的 것이 된다는 것이다.

個人的 情報의 욕구도 같은 맥락에서 考察되어진다.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情報의 필요성은 個人的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自身이 충족하게 구할 능력이 없을때는 그것은 政府 및 보조기관의 도움으로 必要的 情報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음식과 같은 맥락에서 提供되는 情報要求는 지극히 個人的인 要求이기 때문에 情報奉仕 提供時 편견이 개제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식량이나 부족해서 보조기관에 구조를 의뢰하면 個人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간에 같은 식량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에서는 이와같은 個人的 權利를 배척하고 있다. 그것은 料金を 지불할때나 하지 않을때 (예를 들면 大學校의 교수와 대학원학생, 그리고 학부학생간의) 계층별이나 집단별로 차별을 한다는 것을 ALA의 요금없이 (Without Charge) 나 *WHCLIS의 “동등하고 충족한 (Equal and Full Access to...)”에 위배되며, 만약 奉仕를 통제하고 또 공정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個人에게 공히 제한을 줄 수 있는 통일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³¹⁾는 것이다.

2) 경제적 二重부담

도서관의 혜택이 몇몇 個人에게 한정되고 奉仕料금이 二重的인 부담이라는 이유로 圖書館 지원을 위하여 奉仕料를 물어야 하는점은 부당하다고

30) Retting, James, Op. Cit. p.302.

31) Retting, James, Op. Cit. p.303.

* 백악관 도서관 및 정보봉사 협의회

12 도서관학논집

반대자들은 지적하고 또한 圖書館을 위한 세금이 몇몇 圖書館 利用者에게만 제한되어 大多數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처사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는 “다른사람의 비용으로 몇몇 個人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³²⁾”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는 독서가 보다는 스포츠, 음악, 연극등 애호가 있고 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그들의 비용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本人이 원하지 않는 봉사에 대해 料金지불을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Smith³³⁾는 자기없는 사람은 교육세를 물고 싶지 않는 權利 ; 건강한 사람은 의료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는 權利 ; 정신병환자가 아닌 사람은 정신 박약아 지원금을 내고 싶지 않는 權利 ; 圖書館을 利用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利用者들을 위해서 文化비 지급을 원치 않는 權利, 등을 예를 들어 그 부당성을 비유하고 있다.

또 한편 經濟的인 理由때문에 “公共支出을 줄이고 줄인 금액만큼 圖書館이 支援되고 결과 납세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자³⁴⁾”라는 論理는 Smith는 별 큰 도움이 못된다고 피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각 지방단위 마다 측정되는 도서관 예산은 각단위별로 (Local Gov-Package) 약 1.5%정도 밖에 되지않고 그 중에도 특히 圖書館奉仕料에 소요되는 액수는 대단히 미미하다. 때문에 사실상 납세자들에게는 圖書館이 料金を 徵收하든 하지않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 情報奉仕와 小說奉仕

美國에서는 1876년 많은 豫算이 公共圖書館에서 小說類에 支出되는것을 反對한적이 있었다. 이 當時 fiction은 퇴폐적이며 非道德的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889년 또 한번 公共圖書館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유는 도덕적인 것

32) Steig, Margaret F. "Fee Vs in Historical Perspective". Reference Librarian 12, 1985, p.98.

33) Smith John, "A Conflict of Values - Charges in the Publicly Funded Libaray". Journal of Librarianship, 13(1), Jan, 1981, p.12.

34) Smith, John. Op. Cit. p.3.

을 高揚하기 爲하여 設立된 圖書館이 지나친 小說읽는 習性을 助長하므로서 形便없는 小說 때문에 不道德을 고무한다고 非難을 받았다.

對多數 사람들은 小說購入은 公金낭비로 보며 또한 이는 恒常 少數의 人口에 依하여 利用되었고 이 소수는 주로 中산층에 속하며 교양 보다는 오락을, 情報 보다는 허구를 追求한다는 非難을 받았다.³⁵⁾

그러나 反對로 한편의 도서가 여러사람들에 읽혀지므로 얻어지는 가치는 대단하다는 事實을 나타내기는 不可能하다고 主張한다. 圖書의 가치는 그 자료의 맺시지가 독자의 기존지식과 상호작용 되었을때 始作되는 것이다. 아무리 소설이라도 오락적인 독서 以上の 가치가 있는것은 있다. 一般 小說도 위대한 文學作品처럼 想像力을 유발시키며 科學 技術 哲學 圖書와 함께 文學도 (小說) 文化의 한 一部임을 주장한다.³⁶⁾

그러나 奉仕의 수준이나 奉仕의 質을 生覺한다면 小說을 購入한다는것은 公金を 낭용하는 것이라 보고 오히려 “서비스 요금을 支拂케 함으로써 形便없는 자질구레한 질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³⁷⁾

그러나 圖書館 自體에서도 量을 質보다 優位에 두는 평폐적인 평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비록 일시적 가치밖에 없는 자료나 혹은 오락적 자료라 할지라도 教育적 문화적으로 또한 個人이나 社會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으며 문제는 이와같은 공헌과 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고 또한 계량적으로 그 成果를 나타낼수 있는 평가 측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를 經濟的인 側面에 입각한 유용성이나 實用性을 내세우고져 할때 거기에 對處할 수 있는 方法이 必要하다.

35) Steig, Margaret. F. “Conflicts in Reference Service”, Reference Librarian, 12, 1985, p.99.

36) Smith, Op, Cit, p.4.

37) Steig, Margaret, Ibid.

3. Public Goods 과 Private Goods 의 문제

이 論旨은 경제적인 理論을 정보자료나 서비스에 적용시킨 것으로 도서관 봉사를 Public Goods (公產品) 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 反對인 Private Goods (私的品目)³⁸⁾ 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비유한 것이다. 이는 어떤 상품이나 奉仕는 정부를 통해서 購買를하고 또 어떤것은 정부 아닌 다른 사립회사를 통해서 구입한다.

정부를 통해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봉사는 예를들면 교육 경찰 방화 국방 과학 기술등으로서 전 지역이나 혹은 전체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와같은 공공품은 이용때문에 공급이 고갈되지도 않고 또한 이용이 더할 때마다 가격이나 이익에 개인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와같은 이익이나 사용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전체 사회가 공공품으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부를 통해서 구입하는 公品이 효율적인 이유는 정부와 연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단독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같은 수준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수있는 이점이 있다.

개인상사나 회사를 통한 물건은 개인 구매자에게 일차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포함하는 범주로서 소비자는 가격이나 한정된 공급 때문에 구매를 못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와같은 생필품은 공급이 고갈될 수도 있고 또 매 구매단위마다 가격이 상호 연관될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개의 정보생산품 (Inf. Products) 이나 정보 서비스는 순수하게 사적인것과 공적인것 두極상의 어느 한 지점에 놓이게 됨으로 같은 정보도 정보유통 과정상 에서 전혀 다른 어떤 한 지점에서 발견될수도 있어 公과私의 조건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38) Gell, M. K. "USER Fees I: The Economic Argument", Library Journal, Jan, 1, 1979. p.20.

이 경우를 externalities (外在性) 혹은 外的特性으로 간주하고 도서관 정보생산(자료)이나 봉사가 以外在性 상에 놓이지될때 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보편적으로 公共品이나 公共서비스는 세금에 의해서 지급되고 私的인 品目이나 서비스는 個人的으로 支拂하게 되어있다. 도서관 奉仕나 情報生産이 公的인 것과 私的인 양극단 外在性 상에 놓일때 Gell³⁹⁾은 도서관이 요금 지불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① 公共 情報生産品과 서비스의 특징 ② 奉仕者에 주는 情報와 서비스의 經濟的인 효율성 ③ 정보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정보접수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의 공정성 ④ 요금징수에서 어느 정도 대여지출이 보상을 받을것인가에 관한 경제적인 함축성등을 들고있다.

따라서 이 論旨에 依하면 도서관생산정보나 서비스가 公品인가 私的品이나의 결정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할 수도 혹은 하지않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4. 原因分析

William Katz⁴⁰⁾ 와 Thomas J. Waldhart and Trudi Bellard⁴¹⁾가 분석한 찬·반론을 살펴보면; Katz 는

1) 요금지불에 찬성론 (컴퓨터 검색에 관한 요금 문제)

① 도서관은 보통 복사 서비스는 요금을 받는다. 컴퓨터검색 요금도 대개의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요금으로 간주한다.

39) King, Donald W. Key, Papers i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New York, 1983. p.130.

40) Katz, William,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 II., 4th Ed. New York, McGraw Hill, 1982. pp.110-111.

41) Waldhart, T. and Bellardo, Trudi. Op. Cit. pp. 47~48.

② Computer 보조에 의한 탐색은 완전하고 個別的인 봉사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와같은 예외적인 봉사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③ 이용자는 정보접근을 거부하지 않는다.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프린트된 자료를 지니고 있다. 이용자는 다만 개인적인 탐색이나 개인적인 형태만을 거부한다. ④ 요금이 컴퓨터 봉사활용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한 보건과학 도서관의 연구결과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지는 않았다.

유사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구모 학술도서관에서나 연구도서관에서 온라인 검색에 대한 가격을 기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대론

① 미국 도서관 협회가 요금부가를 반대하는 결의를 보였다.

② 미국 도서관은 정보의 자유접근이라는 민주적인 개념에서 설립되었다. 고로 요금부가는 이와같은 전통에 직접적인 위배가 되는 것이다.

③ 도서관 봉사를 위한 요금을 시민들이 이전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④ 연방 연구조사 지원금으로 컴퓨터에 의한 검색기술을 많이 발전시켰음에도 그 成功的인 結果를 利用하는데 다시 요금을 물게 한다.

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을 통제하는 사람이 도서관이 봉사료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산을 감축시킬 위험이 있다.

⑥ 이 요금지불은 보통이용자들에게 컴퓨터에 의한 봉사검색을 주저하게 만든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요금이 부가된 이후 참고봉사는 50%~75%까지 감소되었다. 아직 요금에 관한 실지영향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때 돈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⑦ 봉사요금 뒷처리에 사용되는 잡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편이 싸게 먹힌다.

⑧ 컴퓨터검색이 일반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검색보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컴퓨터검색을 수작업검색에 대치하므로써 경제적인 결과가 된다.

Waldhart and Bellardo 의 찬반론

1) 찬성론

① 세금지원이 감축되거나 고정적인 상태에서 공금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에게는 요금이 다른 수입원이 되고 이 수입원으로 봉사외결과 고객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② 요금을 받으므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정보자료생산이나 봉사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금에서 유지될때는 주민들의 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가 없다.

③ 봉사요구가 고도로 팽창된 지나친 정보활용을 예방할 수 있다.

④ 정보의 가치에 대한 감사를 고조시킬 수 있다.

⑤ 제한된 도서관 자료원에 합리성을 제공하는 장치가될 수 있다. 자질구래한 봉사활동을 격하시킬 수 있다.

2) 반대론

① 봉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사람이나 원치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된다.

② 민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정보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며 또 사회는 그와같은 봉사나 정보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③ 세월에 의한 정보봉사에 공공지지를 장기간동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④ 個人의 정보접근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봉사료 지불 능력이 좌우하게 된다.

⑤ 이용자에게 이중 부담이다.

이상의 종합분석에 거론되지 않았던 몇가지 점은 더 정리해 보면

① 도서관이 천명하고 있는 신조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하다.

② 현사회가 가지는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미사여구와 현실을 식별할수 있어야 한다.⁴²⁾ 그것은 도서관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다.

③ 모든 가치의 측도가 실용성이나 유용성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진조나 신념도 실용주의적인 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도서관은 모든 중요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관해야된다는 개념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④ 도서관직은⁴³⁾ 도서관 신념이 탄생되던 19세기 후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연구도서관협회 (Asso. of Research Lib.), 학교도서관 사서협회 (Ass. of School Librarian), 特殊圖書館協會 (Special Lib Asso.) 등의 존립과 그 역량은 도서관직이 이미 한개의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전문가적 기질은 도서관을 거대한 기구의 환경내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증명한바 있다. 때문에 유료 혹은 무료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환경적 여건을 숙고하지않으면 안된다. 현재는 分明히 19세기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범위까지 19세기 가치를 적용시킬 것인가? TV, Radio 기타 정보산업발달은 도서관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⁴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⑤ “기회균등이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인제받는다는 미국의 전통에서 나온 평등이다.”⁴⁵⁾ 때문에 他人들의 비용에서 몇몇사람들을 도운다는것은 不公平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기 주장하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다르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는 요금징수가 성행하고 있다. 다음장에는 봉사를 징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Gell, Marilyn. Jan. 15, 1979. p.172.

43) Gell, M. K. Ibid.

44) Steig, Margaret. Op. Cit. p.101.

45) Steig, M. Op. Cit. p. 98.

IV. 奉仕料 査定과 奉仕要求

1. 봉사료 査定방법

봉사료에 대한 시비가 계속진행되는 동안 도서관에서는 일부는 강경하게 또 한편에서는 선별된 봉사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요금징수방법은 전혀 일관된것이 없고 각도서관마다, 지역마다 각양각색이다. DeGennaro⁴⁶⁾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이 적용하고 있는 봉사료의 정책은 지역예산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통일되거나 고정적인 정책도 없고 도서관은 아무렇게나 현장에서 필요한대로 일시적인 요금을 적용시켰고 정책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필요성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도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일관성이 없는 모호한 양상 때문에 유료 혹은 무료봉사정책 원칙을 발견하기란 어렵지만 대체로 결정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⁴⁷⁾

- ① 봉사 범위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을 반영
- ② 의도한 봉사제층의 특성
- ③ 요금지불능력
- ④ 사회적 이익과 봉사를 이용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 ⑤ 요구된 봉사의 가능성과 열의
- ⑥ 요구된 봉사에 대한 도서관 기타 매체로 부터 가능한 봉사제공능력과 영향
- ⑦ 기타

이상과 같은 관점들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금에 대한 가

46) DeGennaro R. "Austerity, Technology, and Resource Sharing. Rescareh Libraries face the future. Library Journal, 100, 1975. pp.917-923.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1979. p.48.

47) Waldhart, Thanas, J. and Bellardo, Trudi, Op. Cit. p.49.

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상품 처럼 일정한 금액 책정이 불가능하며 같은 내용의 정보봉사에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한 통제방법은 제시된 것이 없다.

2. 奉仕料와 要求와의 관계

奉仕料金 찬성자나 반대자는 다같이 요금에 정보요구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정도로 요금징수와 요구도와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할 정도의 조사로는 부족하다.

Wagner⁴⁸⁾가 1976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교육기관은 약 77% 온라인 검색에 요금을 받고 있으며, Gloria Werner⁴⁹⁾의 1978년 연구에는 모든 연구산하 도서관은 봉사료를 받고난후 봉사요구가 약 29% 감소되었고 보건과학봉사 (Health Science Service)의 90%의 교육기관에서 요금징수한 것이 나타났다.

1979년 캘리포니아 도서관 연구에 의하면 약 70%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실시되고 그중 60%가 요금을 받고 있다.⁵⁰⁾ 공공도서관중 52% 무료봉사를 하는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약 60%가 유료인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大學과 종합대학교는 약 79%가 유료봉사인것이 발견되었다.⁵¹⁾

1978년 Lehman 과 Wood⁵²⁾의 연구는 문헌전달봉사에 유료제도가

48) Wagner, Judith, et al. "Impact of on-line Retrieval Service", 1976. p. 155.

49) Werner, Gloria. "Use of on-line Bibliographic Retrieval Services in Health Sciences Libraries", Bulletin of Medical Lib. Ass. Jan. 1979. p.9. in Katz, Wm.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II, 1982. p.108.

50) Plofnik, A, "The Issue Revised". American Libraries 9:432 Jul - Aug. 1978.

51) DeWash, Nancy. "Letters" Library Journal 104:p.1292, June 15, 1979.

52) Lehman L. J., and Wood, M. S. "Effect of Fees on Information Service for Physicians", Medical Lib. Bulletin, 66. pp.58-61. 1978.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p.54.

도입되면서 의사들의 문헌정보 요구가 2621건에서 (1972-1973 무료) 218 (1975-1976 유료기간) 으로 약 92 %로 감소되었다. 간단한 문헌검색 봉사에서도 645건 (1972-1973 무료봉사)에서 147건 (1975-1976 유료봉사)으로 약 77 %의 요구가 낮아졌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유료봉사 제도가 도입된후 이용자가 약 1/3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은 계속 이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몇몇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⁵³⁾ 정보봉사의 요구도는 비록 적은 액수라도 요금을 징수할 때는 무료일때 보다 그 영향이 민감하게 반영되어 약 50 %~ 90 %의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때문에 특수한 정보생산이나 봉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료로 제공 되어져야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자나 혹은 지불을 원하지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범위와 같은것이 마련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結 言

Daniel Bell 은 현재를 탈산업시대라 규정하고 그 특징으로 理論的인 지식과 서어비스업종이 팽창할것을 예견했다. 그는 1980 년대는 100 명중 약 70 명정도가 서어비스업에 종사하게 될것이고 또한 정보는 창작, 봉사 및 지식유통에 깊이 관여하여 점차 사회내에서 그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의 예견대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보다 전문화된 정보의 창출과 색인 및 정보제작용이 불가분하게 되었고 정보처리능력도 증대 되었다.

53) Waldhart, Thomas J. and Bellardo, Trud. Op. cit. p.53.

그러나 도서관의 위치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 등장한 정보산업체와 요구의 세분화, 그리고 예산의 고정 내지 삭감상태이다.

이와같은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윤리를 고수하기를 원하면서도 외적인 변화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있다.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요금문제의 시비는 Katz는 그의 個人的인 견해를 “公共기관에서는 요금이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보는 반듯이 무료로 제공되어야한다는 확신과 또한가지 이유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요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고객은 도서관을 멀리할 것이라는 실용적인 생각에서 이다.”⁵⁴⁾ 라고 피력하였다.

반면에 Gell은 “디렘마는 공공도서관의 존립이 아니다. 도서관은 예산이 삭감 되더라도 그 삭감된 수준내에서 자성할 것이다. 디렘마는 도서관 규모와 기능이 후퇴하는 것이다. 장서의 규모는 어느정도로 정할 것이며 무슨 봉사를 도서관이 제공할 것이며 누구에게 봉사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⁵⁵⁾ 라고 Katz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앞에서 論한 모든 찬·반의 論理에서 봉사료에 대한 어떤 공통분모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크게 대별하면 :

첫째는 정보접근의 권리를 人間の 기본권리로 인정하고 완전 무료봉사를 제공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선별적인 특수봉사에 봉사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상 두가지 방법에서 이상적인 방법은 물론 첫번째 방법이다. 정보

54) Katz, William, Op.Cit. p.109.

55) Gell, Marilyn K. “User Fees II: The Library Response”. Library Journal Jan. 15, 1979. p.172.

접근의 단절을 人間の 기본권에 위배되는것으로 간주하고 검열의 한 방법과 같은 것으로 “人生의 기회 (life chance)”를 저지하는것으로 생각하는 理想主義者들은 無料를 주장한다. 그러나 충족한 예산이 없는 현실에서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고객의 요구에 어느정도 부합할 것인가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 방법은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방법의 단점은 물론 봉사요금이 정보접근의 한 통제수단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폭넓은 선택여지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정보 산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발전적인 한 수단으로 일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⁵⁶⁾ 방법이다. 이 방법을 Gell⁵⁷⁾은 봉사요금을 공금 (Public Pricing)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은 선별된 봉사에 요금을 부가시키는 것은 결코 공공도서관을 희생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또한 권리를 양도하는것도 아니다. 때문에 가장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고 보다 확장된 봉사와 개선을 위한 건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금은 어디까지나 세입과는 구별되고 세입의 한 지원적 재원이자 그 자체가 세입 (국고)의 대신일 수는 없다는 점을 Gell은 강조하고 있다.

공금을 엄출하는 방법은 물론 정확한 판단과 객관적 타당성이 필요하지만 대개의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요금을 위시해서 베스트셀라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 상호대차요금, 지정도서, 연체료, 복사 기타 봉사에 대한 요금이 공금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6) Swanson, Don R. "Evolution, Libraries, and National Information Policy", The Library Quarterly, V.50, Jan. 1980, 10, p.88.

57) Gell, M. K. Op.Cit. p.173.

A Study on the Library Reference Service Fees

Son, Yeon Ok*

User fees have been employed by libraries as far back as the mid-1800s in both United States and England. By the late 1800s and early 1900s, the charging of user fees for some library products and services had become a reality in many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Yet the practice has created controversy when computer-aided reference service began to charge especially in the publicly funded libraries.

There are two extream arguments on library reference service fees : one is for and ther other is against. Most fee opponents base their stand on morality. They argue that charging fees for any service is wrong because it violates the users'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regard it as an act of decrease human life chances as well as an act of censor. But those who favour fee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theticoric from the reality and to distinguish what libraries are from what they do.

* Dept. of Library Science,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revealed that library has two options. One is strict free of charge and the other is charging for selected library services. Whatever options the library may take, library had to decide an overall reference service policy.

The level and scope of service, audience, necessary fund (who and how) and many other physical and metaphysical things must be considered.

However, the first option will necessary be to limit services while there is no loss of traaional philosophical service element. Yet, if to provide a wide range of choices and to create conditions more hospitable to competition from the private information sector and for better evolutionary selection, the second option (fee-based service) gives more benefit to the users while there is a loss of fundamental service philosophy.